

영 화



〈'아저씨' 김희원〉

# 짧은 등장 진품연기 막강 조연 전성시대

‘해결사’ 송새벽 ‘시라노’ 박철민 등  
연극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내공  
‘강한 존재감’으로 스크린 관객몰이

‘명품 조연, 스크린을 장악하다.’

지난 봄 화제를 모았던 영화 ‘방자전’의 주인공은 김주혁·조여정·류승범이었지만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에게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은 ‘변학도’였다. 류승범과 함께 등장하는 첫 신부터 만만찮은 포스를 보여준 변학도 역을 맡은 이는 배우 송새벽.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원빈을 위협하는 ‘색과 타크로 형사’로 출연, 짧지만 강한 인상을 보였던 송새벽은 ‘방자전’에서 어눌한 말투와 독특한 억양,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코믹 연기로 시종일관 관객들의 배꼽을 쥐락펴락했다.

송새벽의 파워는 설경구가 주연을 맡은 ‘해결사’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5주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한 ‘아저씨’를 제치고 흥행 선두에 나선 ‘해결사’는 전직경찰 출신 해결사 설경구가 사건에 말려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액션물.

송새벽은 이 작품에서 ‘코믹 조연’의 달인 오달수와 함께, 설경구가 용의자로 지목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어리버리한 경찰 역을 맡아 코믹 연기의 진수를 선보인다.

송새벽은 ‘시라노 : 연애 조작단’에서는 조기축구 멤버에 어리숙한 전라도 사투리로 전형적인 비호감형이자 연애 한번 못해본 의뢰인 역을 맡기도 했다.

‘해결사’의 또 다른 코믹 감초는 배우 이성민. 그는 ‘해결사’에서 ‘박쥐’같은 변호사 출신 사업가 윤대희 역을 맡았다. 설경구에게 쫓기며 호들갑을 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니면서도 관객들에게 주는 웃음이 너무 커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가 바로 윤대희다.

드라마 ‘파스타’에서 레스토랑 지배인으로 출연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던 이성민은 극단 ‘차이무’ 소속으로 수많은 연극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온 대학로의 스타이기도 하다. ‘광식이 동생 광태’의 김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시라노 : 연애 조작단’에도 탄탄한 연기력의 조역급들이 포진해 있다.

‘화려한 휴가’의 택시기사 ‘인봉’역, ‘스카우트’의 순정남 ‘서근태’역 등 코믹 연기의 진수를 선보여 온 박철민은 ‘시라노 : 연애조작단’에서 연애 전문 대행사 ‘시라노 에이전시’의 말짱이자 작전 대본과 의뢰인 관상, 역술을 담당하는 ‘철빈’ 역을 맡아 적재적소에서 그만의 코믹 연기와 내공을 펼쳐 보인다.

또 권해효는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유달수유달한 연기로 코믹 캐릭터의 한 축을 담당했다.

600만명에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2010년 개봉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아저씨’는 조연들의 연기가 빛

을 발한다. 주인공 원빈과 대결하는 장기 밀매 조직 보스 ‘만석’ 역의 김희원은 ‘청담보살’, ‘거북이 달린다’ 등에 출연,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로 창작뮤지컬 ‘빨래’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극중 원빈과 원빈이 쫓는 폭력조직을 동시에 쫓는 형사 반장 치곤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김태훈은 배우 김태우의 친동생으로 지난 2008년 단편 ‘6시간’으로 칸영화제 비공식부문에 초청된 바 있으며 ‘악탈자들’ 등에 출연했다.

또 치곤과 짝패를 이룬 노형사는 평범치 않은 ‘일상 연기’로 만만찮은 연기 내공을 보여주는 인물. 노형사로 분한 이종필은 ‘불을 지피라’, ‘달세계 여행’ 등 단편 영화로 이름을 떨친 감독이다. 장편 연출을 준비하며 간간히 연기자로도 활동하던 그는 ‘악탈자들’을 통해 배우로 주목받으면서 ‘아저씨’에 출연하게 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즐거운 한가위**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 기쁨마다 정겨운 추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확’ 바뀐 프라도호텔 웨딩홀에서  
당신의 미래를 시작하십시오!**

■ 특급 프라도호텔 웨딩을 선택 하셔야 할 이유

1. 실속있는 고품격 웨딩 (일반 예식장 가격으로 모십니다) 예식 진행 비용도 모두 무료 / 식사요금만 부담
2. 하루 단 한상 (450명 이상 예약시)
3.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예식시간(최소 200명 이상 예약 가능)
4. 독립적인 식사장소 제공을 통한 여유로운 피로연
5. 특급호텔 조리사가 제공하는 최상의 요리
6. 한 쌍만의 시용 고객을 위한 혼잡하지 않는 주차장

예약문의/상담. 062-654-6600 | www.pradohotel.co.kr | PRADO

## 새 영화 '퀴즈왕'

누적 상금 133억 5000만원이 걸린 퀴즈쇼의 마지막 정답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벌이는 유쾌한 소동극이다.

이 영화가 관심을 모으는 건 재기 넘치는 영화 구성과 독특한 유머 코드로 ‘자신만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장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이다.

한밤 중 강변북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한 여자가 죽는다. 해결사인 도엽과 상길, 무능한 도박사 상도와 속 쏠이는 아내 필너, 인터넷 카페 ‘우울증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회원들 등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서 교통과에 모인다.

서로 책임을 떠 버기던 사람들은 죽은 그녀가 갖고 있던 유명 퀴즈쇼의 마지막 문제 답안지를 우연히 보게 되고, 일확천금을 노린 일생일대의 퀴즈 대결에 나선다.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김수호와 한재석이 때인 돈을 받아주는 해결사로 등장, 장진 감독과 첫 호흡을 맞췄으며 류승룡·장영남·류덕환 등 ‘장진 사단’ 배우들이 출연한다. ‘장진 사단’의 대표 배우들인 임원희·정재영·신하균·이한위 등도 카메오로 합류했다.

퀴즈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감춰진 사연들은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

133억 걸린 퀴즈 맞추기 대소동  
‘독특한 유머코드’ 장진감독 메가폰  
코믹연기 달인 김수호 해결사 등장

